

# 보 도 자 료

## 경제불황에서도 민주주의는 번창할 수 있나? 국제비교로 본 한국 〈한상진 교수 발표요지〉

-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 주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재)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문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02-880-6314, 8806314@hanmail.net)  
중민재단 국제협력연구(EARN)  
(02-875-8474, EARN@EARNglobal.org)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발표

## 신흥민주주의의 감정대립 정치: 경제불황기의 정권교체 산물?

(5월 22일, 16:00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406호)

1. 세계경제불황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경험한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야간 감정대결의 정치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기는 한국, 폴란드, 칠레다. 한상진 교수의 발제는 2006년과 2013년에 실시된 세계 7개국의 국회의원 조사와 일반시민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감정정치 양상을 심층 분석하고 독일과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양상과 비교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2.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설문 항목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13가지 가치들이 각 국가에서 2006년과 2013년에 각각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를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물은 것이다. 2006년과 2013년 자료에서 발견한 1) 여야 의원들의 차이, 2) 여야 지지 유권자들의 차이, 3) 여당 의원과 지지 유권자들 사이의 차이, 4) 야당 국회의원과 지지 유권자들 사이의 차이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치의 과잉 감정대립 양상을 실증적 자료로 보여준다.
3. 정당은 사회계급, 계층, 지역, 세대 등을 대표하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대결적이다. 정당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사회 현실을 현저히 다른 눈으로 본다. 따라서 여야 간에, 또는 여야를 지지하는 유권자

# 보 도 자 료

집단 사이에 의견과 평가의 차이가 있고 대립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정당은 사회구성원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립과 통합의 양두마차를 어떻게 이끄는가가 정당의 기능에서 다같이 매우 중요하다.

4. 하나의 발견은 민주주의 현실을 평가하는 여야의 격차가 2006년보다 2013년에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국, 폴란드, 칠레가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스웨덴과 독일의 여야 격차는 두 시기에 비슷하다. 신생 민주주의의 경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증가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여야 정치가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 역사적 변동의 관점에서 중요한 발견은 한국, 폴란드, 칠레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승자는 2006년에 비해 2013년에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는 눈이 현저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반면, 패자는 현저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한 교수는 여기서 승자의 변화를 "프리미엄"으로 규정하고, 패자의 변화를 "디스카운트"로 규정한다. 승자의 프리미엄과 패자의 디스카운트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질주한다. 이 경향은 한국에서 현저하다. 100점 만점에서 승자의 프리미엄은 평균 15.1점이고 패자의 디스카운트는 평균 -26.4점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더 심하다. 승자의 프리미엄은 27.0점이고 패자의 디스카운트는 -33.5점이나 된다. 칠레의 경우, 프리미엄 27.5점, 디스카운트 -12.6점이다. 이것은 2006년에서 2013년으로 오는 사이에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는 승자와 패자의 눈이 일관되게 현저히 반대의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음을 뜻한다.
6. 이런 양극화의 추세는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같은 시기에 정권교체가 없었기에 상황이 똑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현실을 보는 여야의 시각은 많은 쟁점들에 관해 같은 방

# 보 도 자 료

향으로 간다. 즉 쟁점에 따라 여야가 2006년보다 2013년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나빠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는 평가가 긍정과 부정의 방향으로 갈라지는 쟁점도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대립 또는 흑백의 이분법적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교한다면, 신생 민주주의의 양상은 현저한 이분법으로 들어난다. “우리 쪽은 잘 하고 상대는 틀렸다”는 거부와 자기확신의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양상은 왜곡되지 않은 정보에 입각하여 사물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숙고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또는 질적 민주주의와 반대된다. 이런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합리적 검증과 토론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감정대립 정치의 양상을 한국, 폴란드, 칠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다른 한편 승자의 프리미엄은 국회의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도 갖는다. 디스카운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경험적 자료로 확인한 경향은 선거에서 이긴 유권자의 프리미엄보다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이 일관되게 현저히 높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패배한 유권자의 디스카운트보다 국회의원의 디스카운트가 현저히 크다. 이 차이를 한상진 교수는 “잉여 갭”(surplus gap)이라 부른다. 이것은 곧 승자는 이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보다 더 현저히 자화자찬을 하며, 패자 역시 그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보다 현실을 더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여당의원들의 잉여 프리미엄과 야당의원들의 잉여 디스카운트가 검증에 입각한 합리적 정치, 즉 민주주의의 질을 어렵게 만든다. 유권자들도 분열되어 있지만 여야 국회의원은 이보다 더 분열적이다.
8. 한국의 경우, 승자의 잉여 프리미엄과 패자의 잉여 디스카운트는 총평균으로 보아 비슷하다. 잉여 프리미엄은 3.4점, 잉여 디스카운트는 -3.7점이다. 그러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항목을 보면, 여당 의원은 자유선거, 억압 시 저항의 자유, 정부비판의 자유와 같은 시민기본권

# 보 도 자 료

에서 지지 유권자보다 훨씬 큰 프리미엄을 취한다. 즉 지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의 기본권이 훨씬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 의원의 경우에는 평등한 교육기회, 소수자 권리 보호, 정부비판의 자유,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잉여 갭”으로 측정된 감정정치는 여야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여야의 책임이 다같이 크다는 것이다.

9.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승자의 프리미엄과 패자의 디스카운트를 국민 ‘일반의지’(여야 지지자들을 모두 합한 국민전체의 집합의사)와 비교해보면, 일반의지는 2006년에 비해 2013년 한국의 시민기본권이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승자(여당의원)은 시민기본권이 의미 있게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승자의 인식이 국민 일반의지로 부터 현저히 괴리 된 것으로 평가된다.
10. 결론적으로 한상진 교수의 발제는 수량적으로 측정하기 난해한 감정 정치의 효과를 국회의원과 시민의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교수에 의하면, 지지 유권자들보다 여야 의원들이 더 분열적이라는 데 감정정치의 심각성이 있다.

▷ 문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02-880-6314, 8806314@hanmail.net)  
중민재단 국제협력연구(EARN)  
(02-875-8474, EARN@EARNglobal.org)